

보도시점 2026. 6. 10.(수) 14:30 (2026. 6. 11.(목) 조간)

## 전남광주 산업안전보건의 미래, 현장에서 함께 해법을 찾는다!

- 고용노동부·지방정부·노동계·경영계·노동안전보건단체가 함께  
전남·광주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 개최

고용노동부(김영훈 장관)는 6월 10일(수) 14시 30분, 광주광역시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전남광주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지역 단위의 거버넌스를 통해 일터 위험격차 해소의 핵심인 작은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정책과 지원을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노동계·경영계, 안전보건기관, 전남·광주 등 지방정부 관계자, 노동안전보건단체가 참석하였으며,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참석하여 논의에 함께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과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 방안’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우선,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관련, 소형 어선 어민, 감귤 선과장 안전 일터 지원 등 전남·광주·제주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한 후 토의하였다. 이어서,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주·청소년·하청 노동자 등 안전보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개선을 위한 지역 내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앙의 정책이 현장으로 뻗어나가는 길목이자 핵심 창구인 지역 내 각 주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전남·광주 지역의 신뢰 자산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실천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남광주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 행사 개요  
 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모두 말씀

담당 부서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안전보건격차개선과	책임자	과 장	용운서 (044-202-8831)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안서종 (044-202-8889) 김건우 (044-202-8888) 이영훈 (044-202-8886)
담당 부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	책임자	과 장	백경남 (062-975-6484)
		담당자	팀 장	이현철 (062-975-6485)
담당 부서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교육홍보센터	책임자	센터장	안영준 (062-949-8740)
		담당자	차 장	김지숙 (062-949-8714)



**붙임 1****「전남광주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 행사 개요**

- ☐ **(행사명)** 전남광주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
- ☐ **(일시)** '26. 6. 10.(수) 14:30
- ☐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01호 회의실
- ☐ **(참석)**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등
  - (지방정부) 전남 · 광주 · 제주
  - (참석자) 노동계, 경영계, 노동안전보건단체, 안전보건공단, 유관기관 등
- ☐ **(내용)** 지역 내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및 지역 현안 논의
- ☐ **(세부 일정)**

\*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모두말씀까지 공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30~14:37 ('7)	■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37~14:40 ('3)	■ 인사말씀	광주청장
14:40~14:45 ('5)	■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모두말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14:45~15:35 ('50)	[세션1]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토의 - 자치단체 등 총 4명 발제(각 5분)	참석자 전체
15:35~16:25 ('50)	[세션2]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 방안 토의 - 노동안전보건단체 등 총 3명 발제(각 5분)	사회자
16:25~16:30 ('5)	■ 단체사진 촬영	사회자
16:30	■ 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노동단체, 경영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 관계자분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안전보건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출범 이후  
산업재해 감축을 국정 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9월 관제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올 2월에 안전보건공시제, 위험성평가 제재 신설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안전일터 신고포상금제, 안전한 일터 위원회 설치 등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안전일터 지킴이 채용으로  
현장 점검, 감독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올해 1분기 사망사고자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 붕괴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와 같이  
여전히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일터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시제, 경제적 제재와 엄정한 수사·감독을 통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는 한편,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작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아  
‘일터 위험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일터 위험격차 해소에 있어  
중앙의 정책이 현장으로 뻗어나가는 길목인  
지역 내 각 주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전남·광주 지역의 신뢰 자산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실천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논의가 지역의 산업재해 감축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입니다.

오늘의 전남·광주 지역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은  
그간의 산업재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각 주체들이 역할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지역의 산업안전보건 현안과 위험에 대해  
노·사, 중앙·지방정부, 협·단체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여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둘째, 안전보건 사각지대의 해소 방안입니다.

재해 예방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이주, 고령, 플랫폼 노동자들은 모두  
우리 거버넌스의 중요한 정책 대상입니다.

자치단체의 지역 네트워크, 공단 및 협단체의 전문성,  
노사와 시민사회의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하나로 엮어  
맞춤형 밀착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폭염은 단순한 일상적 더위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 재난이자 유해·위험요인입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온열질환을 예방에도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① 시원한 물, ② 냉방장치, ③ 휴식, ④ 보냉장구 지급, ⑤ 119 신고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토론이  
모든 노동자가 아침에 출근한 모습 그대로  
가족의 품으로 퇴근할 수 있는 ‘안전일터’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혜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